

# 創世始祖神話의 傳承變異에 관한 研究

李 志 映

## 1. 머릿말

창세시조신화는 천지를 분리하고 인간을 창조하거나, 日月을 調整하면서 人世를 차지하는 시조에 관한 이야기로서, 지금은 문헌에는 남아 있지 않고 무속에서 독립된 굿거리나 시준굿과 같은 굿거리에서 삽입되어 전승하고 있다. 현재 채록되어 보고된 자료는 10여편에 이르며, 제석본풀이 가운데 몇몇 자료에도 일부 내용이 삽입되고 있어 창세시조신화의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은 대체로 살펴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상관성이 서대석, 김열규, 현용준 등에 의해 지적되면서 여러 유형의 서사무가가 연구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천지창조에 관한 신화는 관심의 미비로 인하여 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1970년대 말경에 임석재가 이 신화의 중요성을 처

---

1) 김열규(1977),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서대석(1980a), 제석본풀이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서대석(1983), 고대 건국신화와 현대 구비전승,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현용준(1992), 한국신화의 구조에 대한 일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권태효(1989), 건국신화와 堂神神話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음 지적인 이래로, 서대석, 김현선 등에 의하여 조금씩 창세시조신화의 연구의 폭이 넓혀져 가고 있다.

임석재는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sup>2)</sup>에서 기존에 발표된 자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소개하면서(함흥지역 2편, 제주도지역 2편, 울진지역 1편), 우리나라 천지개벽신화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그 문화적 의의를 거론하였다.

서대석은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sup>3)</sup>에서 임석재가 소개한 자료 이외의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고 또한 창세시조신화 내용의 일부가 삽입된 제석본풀이 자료를 추가하여,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창세시조신화의 본래의 모습을 추정하고 여기에 투영된 우리의 민족 의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자료에 드러나는 신화소를 하나씩 들어서 그 변이와 의미를 고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논문 「고대 건국신화와 현대 구비전승」<sup>4)</sup>에서 무속신화와 건국신화가 동일한 뿌리에서 연원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창세시조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 제석본풀이에 각각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현선은 창세시조신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sup>5)</sup> 각 자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신화소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지역적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창세신화가 한국 본토지역의 것과 제주도의 것으로 兩分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창세시조신화의 구체적인 특징이 밝혀졌으며, 특히 이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신화소의 자료간 변이양상과 그 의미가 어

2) 임석재(1977),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耕學 金永敦博士 華甲紀念 教育學論叢』.

3) 서대석(1980b),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화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4) 서대석(1983), 앞의 논문.

5) 김현선(1993a),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변이 양상, 한국구비문화 연구회 동계발표회, 1993.2.7.

김현선(1993b), 북부·중부·동부 지역 창세신화소의 의미와 변이 양상, 한국구비문화 연구회 발표회, 1993.5.

는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sup>6)</sup> 그러나 창세시조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후술하겠거니와 이 창세시조신화는 전승되는 층위가 조금씩 다르며, 무속 제의 현장에서 확보되는 제차에 따라 그 내용이 사뭇 다양하게 변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대석의 논의에 의하면 창세시조신화는 창세신화와 시조신화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신화는 創世神에 대한 祭享이 없어진 곳에서 시조신화로 편입되었고 시조신화는 불교의 영향으로 변모하여 제석본풀이를 형성하고 있다.<sup>7)</sup> 우리의 창세시조신화를 보면 혼돈을 조정하고 물과 불이나 의복, 火食과 같은 문화를 창조하며 인세를 차지하는 창세시조에 관한 신화(후술될 <창세가>형)와, 천지왕이 지상에 하강하여 神聖婚을 한 뒤 지상에서 탄생한 그 二世가 人世를 다스리는 인세시조에 관한 신화(후술될 <천지왕본풀이>형)가 전승되고 있다. 창세시조가 직접 인세까지를 다스리는 것과, 지상에서 태어난 二世가 인세를 다스리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바로 후자의 신화가 건국신화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이 신격의 변질로 인하여 제석본풀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자의 신화는 그 내용의 일부가 <천지왕본풀이>형이나 제석본풀이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된 대로 고정 제차를 확보하지 못할 때 해당 신에 관한 무속신화가 그 모습이 변모되면서 다른 신화에 얹혀 구연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세시조신화의 온전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신화소의 대비작업보다는 전승 체계를 먼저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창세시조신화를 내용별로 유형화한 뒤 이들 유형간의 변이 양상을 살피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비록 창세시조신화는 아니지만 <천지왕본풀이>를 토대로 형성된 제석본풀이도 대표적인 몇몇 자료를 들어 거론하기로 한다.

6)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 자료 사이의 신화소별 대비를 통한 변이양상과 의미 분석 작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7) 서대석(1980b), 앞의 논문, p. 27.

## 2. 창세시조신화의 전승 체계

### 2.1. <창세가>형

창세시조신화 가운데 천지의 혼돈을 제거하고 일월을 조정하며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창세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편의 이름이 모두 창세가로 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창세가>형이라 명명한다. 이 신화는 물론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편이다. 모두 손진태가 채록하여 보고한 것으로 해방 이전에 함경도 지방에서 채록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남쪽에서 채록되어 보고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해당 자료를 거론할 때는 구연자를 중시하여 「김쌍들이본」, 「전명수본」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巫歌名	전승지	구연자	채록자	발표지	발표연도
①	창세가	함흥	김쌍들이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1930
②	창세가	강계	전명수	손진태	신가정	1936.4

우선 「김쌍들이본」의 내용을 정리한 뒤 「전명수본」과 내용적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하늘과 땅이 생길 때 탄생한 미륵은 서로 맞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기둥을 세워 갈라 놓는다.
2. 미륵은 두 개씩이던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내 여러 별을 만들어 하늘의 질서를 잡는다.
3. 미륵은 장삼과 고깔을 짓고, 물과 불의 근원을 밝힌 뒤 火食을 시작한다.
4. 미륵의 기원으로 하늘에서 금,은쟁반에 각각 금,은벌레가 떨어졌는데,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어 그들은 인류의 시조가 된다.
5. 태평한 세상에 석가가 내려와 이 세상을 빼앗으려고 한다.
6. 둘이 서로 인세차지내기를 하여 미륵이 이겼으나, 삼자며 무릎에 꽃 피

우는 내기에서 석가가 반잠을 자면서 미륵 무릎 위에 편 꽃을 흠쳐 쥐어와 자기 무릎에 심는다.

7. 잠에서 깨어난 미륵이 석가의 僞計를 나무라며 이 세상을 넘겨주고 자기는 저승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승에 악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8. 과연 석가의 치세 후에 인세에는 악이 만연한다.

위를 보면 단락 1,2,3,4는 천지와 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용인 반면에 단락 5 이하는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담이어서 내용상 둘이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전자가 천지인의 창조 과정이라면 후자는 창조된 인세의 통치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전명수본」에는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과정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단락 1,2,3,4 가운데 일월 조정담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월 조정담도 인세차지담이 먼저 이야기되고 다음에 나타난다. 「김쌍들이본」에서 일월 조정이 창세시조인 미륵의 행위로 되어 있다면, 「전명수본」에서는 미륵 이후의 인세시조인 석가의 행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월의 複數는 태초의 혼돈상이 아닌 인세의 혼란상으로 비쳐지고 말았다. 그러나 「김쌍들이본」에서처럼 미륵의 행위로 설정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는다. 일월의 조정은 창세시조의 영역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자료를 통해본 <창세가>형의 내용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언급한 대로 단락 1,2,3,4은 그 내용이 미륵의 창세 과정으로 파악되나, 자세히 보면 단락 1,2와 단락 3,4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단락 1,2는 미륵이 천지의 혼돈을 제거하고 일월을 조정 한 것으로 이는 창세시조의 ‘천지의 창조’ 행위에 해당된다면, 단락 3,4는 미륵이 人間과 衣食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창세시조의 ‘인세의 창조’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창세시조에 관한 천·지·인의 완전함을 추구한 그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자료를 보면 미륵의 성격은 태초에 최초의 천지를 개벽한 절대적인 창조자로 보기에 미흡하다. 곧 그는 천지 개벽 후에 태어나며

다만 맞붙어 있던 천지를 분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창조도 그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에 기원하여 거기에서 떨어진 벌레에서 인간이 생겨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륵은 절대적인 창조자라기보다는 인간세상의 통치자이면서 보다 탁월한 능력의 천지 질서의 조정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 논의된 바에 의하면 단락 1,2,3,4에서는 ‘天地의 分離(混沌 除去), 複數 日月의 調整, 인류문화의 창조, 인간의 창조’라는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단락 5,6,7,8은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담으로 볼 수 있는데, ‘諸神間의 치소차지 경쟁’ 화소가 창세기조신화에서부터 비롯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세차지’가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무속신화에서는 창세기조가 천지인의 창조 뒤에 궁극적으로 인간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을 중시하는 우리 무속의 인본주의적 사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 양상을 보면, 석가가 내기를 제의하여 두 번의 경쟁에서 석가가 모두 지자 다시 한 번 꽃 피우기 내기를 주장한 뒤 이번에는 術數를 써서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두 번의 경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자료가 서로 다르다. 「김쌍돌이본」에는 ‘동해 위에서 병에 줄을 달고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여름에 성천강을 얼리기’로 되어 있고, 「전명수본」에는 ‘깨진 병 속의 물이 공중에 매달리기’, ‘달걀을 위에서부터 낮가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내기는 보통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신성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두 자료에 공통된다. 그리고 이 신성성 때문에 두 자료 모두에서 창세기조인 미륵은 당연히 이기고 있다. 이러한 신성성은 ‘잠자면서 무릎에 꽃 피우기’ 내기에서도 발휘된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전명수본」에서 보이는 ‘일월의 조정’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석가가 ‘최선비를 족쳐서’ 수미산에 있는 日月을 갖고 오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석가는 일월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륵이 직접 複數 일월을 떼어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sup>8)</sup> 이러한 석가의 능력은 앞선 내기

경쟁에서 석가가 보여준 것과 같은 것으로, 미륵이 신성성에서 한 수 위에 있음을 구연자는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 ‘일월 조정담’에도 능력의 우월 문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창세가>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천지창조-인세창조-인세차지 경쟁-治所 좌정』이 될 것이다.

## 2.2. <천지왕본풀이>형과 <제석본풀이>

### 2.2.1 <천지왕본풀이>형

창세시조신화 계열에 속하는 자료 중에 지상탄생의 天父地母型 건국신화와 같은 것이 本土의 시루말과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다. 이 신화가 단군신화와 주몽신화 계열의 시조신화이며 이들이 후대에 변모한 것이 <제석본풀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sup>8)</sup> 이들 자료는 본토와 제주도에서 서로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데 다음 장에 논의될 자료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천지왕본풀이>형(이하 略하여 <천지왕>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는 3편이다.

	무가명	전송지	구연자	채록자	발표지	발표연도
①	시루말	경기 오산	이종만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②	천지왕본풀리	제주 서귀포	박봉춘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③	천지왕본	남제주	이무생	秦聖麒	남국의 무가	1960

8) 미륵 자신의 직접적인 복수 일월의 조정이, ‘최선비를 죽이는’ 간접적인 조정보다 원초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음에 다룰 <천지왕본풀이>형에서는 인세시조가 활로 일월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 활은 미륵과 같은 문화 영웅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일월을 직접 제거하는 미륵과 활로 쏘는 천지왕본풀이의 인세시조와는 능력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명수본』에 보이는 석가의 일월 조정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천지왕본풀이>형의 인세시조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9) 서대석(1980b), 앞의 책, pp. 24-25.

본토와 제주도의 내용적 차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두 편의 서사단락을 각각 제시하기로 한다.

A. 시루말(李鍾萬本, 오산)<sup>10)</sup>

1. 천하궁 당칠성이 지상에 하강한다.
2. 그는 매화뜰 매화부인과 동침하고 아들 형제의 잉태를 예언한 뒤 승천한다.
3. 매화부인이 선문이와 후문이 형제를 낳고 양육한다.
4. 형제가 글방에서 無父之子라 조롱받자 어머니에게 부친의 근본을 묻는다.
5. 형제는 무지개 타고 하늘에 올라가 부친을 상봉한다.
6. 당칠성은 선문이에게는 대한국을, 후문이에게는 소한국을 맡긴다.
7. 형제가 複數 日月을 활로 제거한다.

B. 천지왕본푸리(朴奉春本, 서귀포)<sup>11)</sup>

1. 천주왕이 하강한다.
2. 천주왕이 무도한 수명장자를 징치하려다가 실패한다(나중에 소별왕이 인세 차지 후 장자를 징치함).
3. 천주왕이 백주할망의 딸과 동침하고, 아들 형제의 잉태를 예언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박씨를 건네준 뒤 승천한다.
4. 백주할망의 딸이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고 양육한다.
5. 형제가 어머니에게 부친의 근본을 묻자 어머니는 박씨를 준다.
6. 형제는 박씨를 타고 천상의 부친을 찾아가 상봉한다.
7. 천주왕이 두 아들에게 저승과 이승을 맡기려고 은대야에 꽃을 심어 키우기 시험을 시킨다. 왕은 형(대별왕)이 이기자 이승을 맡기고 동생(소별왕)에게 저승을 맡긴다.
8. 동생이 욕심이 나서 형에게 인세차지 내기를 제의한다.
9. 잠자기 내기에서 동생이 반잠을 자면서 은대야 속의 형의 꽃을 자기 앞에 갖다 놓는다.
10. 형은 동생의 僞計를 알고 나무라면서 이승을 넘겨주고 자기는 지옥을 차지한다.

먼저 제주도의 또다른 자료인 「이무생본」<sup>12)</sup>을 「박봉춘본」과 대비한 뒤에, 본토와 제주도의 자료간 차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10)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pp. 128-132.

11) 위의 책, pp. 460-466.

12) 진성기(1960),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pp. 287-296.



우선 '수명장자 징치' 부분으로 「박봉춘본」에서 장자가 단순히 無道한 사람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무생본」에는 장자의 악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쉬맹이 장자'가 불효하기 때문에 부친이 죽어서도 그에게 제사밥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도 천지왕이 그 장자를 징치하려다가 실패한다.

인세시조의 출생과정과 인세차지 경쟁은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한 편이다. 다만 인세차지 부분에 있어서 「박봉춘본」에서는 부친이 아들 형제에게 내기 경쟁을 시킨 뒤 治所를 배정하나, 「이무생본」에서는 부친이 경쟁이 없이 형에게 이승을, 동생에게 저승을 맡기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본래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토의 「이종만본」과 비교할 때 후자의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원래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 장에서 거론될 <베포-천지왕본풀이>형의 자료에서도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한다. 게다가 <천지왕>형과 서사적 구조가 같은 <계석본풀이>에서도 중이 세 아들에게 경쟁이 없이 神職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원래는 부친이 아들들에게 인세를 배정하는 이야기였던 것이, 점차 아들간의 경쟁 양상으로 변모된 듯하다.

'일월 조정담'은 「박봉춘본」에 없지만 「이무생본」에는 들어 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본토의 시루말에도 나타난다. 다만 「박봉춘본」에서는 형이 활로 일월을 하나씩 쏘아 인세의 혼란을 막아주고 있지만, 시루말에서는 형제가 함께 활로 쏘고 있어 조금은 다르다.

본토의 자료와 제주도의 자료 사이에 발견되는 두드러진 차이는 '長者 懲治譚'의 有無에 있다. 즉 본토의 자료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나 제주도의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시조신화 계열의 제주도 자료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장자징치담이 창세시조신화에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니고 <장자못전설>이 수용되면서 변모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천부지모형 건국신화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단군신화나 주몽신화<sup>13)</sup>를 살펴볼 때 천상에서 하강한 존재(환웅, 해모수)가 악한 지상인과 갈등을 일으켜 그를 징치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기

13) 서대석(1980b), 앞의 책, pp. 24-25.

때문이다.<sup>14)</sup> 이 삽화는 후술하겠지만 창세시조신화의 여러 변이형에 빈번히 등장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된다.

<창세가>형을 보면 창세시조의 여러 행위가 이야기되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 ‘일월 조정담’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오직 이 이야기만이 <천지왕>형에 삽입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창세시조의 활동 영역이던 일월 조정 능력을 인세시조가 흡수하여 능히 담당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sup>15)</sup>

옛부터 우리의 통치자에게는 天候나 豊凶을 조절할 의무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인세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해와 달을 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 서사무가에도 반영되면서, 시조의 인세 차지 과정을 들려주는 <천지왕>형에도 일월조정담이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창세시조로부터 인세시조로의 일월 조정 능력이 이동됨으로써, 인세시조는 인세의 통치자로서 요구되는 기후조절의 권능을 훌륭히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천지왕>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천상신 하강-천부지모형 신성혼-인세시조의 지상탄생-부친 찾기 승천-인세차지(경쟁)-치소 좌정』이 될 것이다.

### 2.2.2 <제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형과의 상관성

<천지왕>형은 이미 언급했듯이 천상적 속성의 남성이 지상에 하강하

14) 千惠淑이 <장자못전설>의 신화적 성격을 논하면서, 이 삽화가 들어 있는 두 자료(제주도의 정주병본 천지왕본풀이, 강계의 전명수본 성인노리푸념)를 택하여 해당 삽화 부분만을 놓고, 하강한 창세 시조와 지상의 기존 세력권자 사이의 대립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창세시조신화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고 여겨지기에 필자는 수긍하기 어렵다.

천혜숙(1987),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pp. 47-53.

15) 신화소 ‘일월 조정’이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서대석에 의해 자세하게 고구된 바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위의 성과를 수용하였음을 밝히둔다.

서대석(1980b), 앞의 책, pp. 16-18 참조.

여 지상적 속성의 여성과 결합(天父地母型 神聖媾)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二世가 인세의 시조가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일한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석본풀이>다. 이 무속신화는 <바리공주>와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화로서 자료 또한 풍부한 편이다.

서대석은 26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무가권을 구획하고 신화적 성격을 고구려 건국신화와 대비하여 밝혔으며, 이본들간의 전승과 변이 양상을 살피고 나아가 이 신화가 지니는 문학사적 위치를 점검한 바가 있다.<sup>16)</sup> 그에 의하면 제석본풀이에 등장하는 중은 본래 天神의 성격이 있으며, '당금아기' '서장아기' 등으로 호칭되는 처녀도 地母神의 존재였고, 태어난 아들 삼형제는 命과 福을 관장하는 제석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제석본풀이는 天父와 地母의 결합으로 財福·命福神이 탄생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이는 국조신화에서 國祖의 出生 과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제석본풀이>에 대해 새로이 연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신화가 <천지왕>형과 관련이 깊은 까닭에<sup>17)</sup> 이 둘 사이의 상관성을 따지기 위하여 거론하려 한다. 그리하여 창세시조신화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자료들만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천지왕>형이 어떤 모습을 띠면서 <제석본풀이>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석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 딸아기의 부모가 집에 없고 딸아기만 남아 있는 사이에 중이 찾아와 잠긴 문을 도술로 연다.
2. 중은 시주를 요청하고 딸아기는 중에게 시주한다.
3. 밀 터진 바랑에서 쏟아진 쌀을 줍다가 날이 저물자 중은 유숙을 청한다.

16) 서대석(1980a), 제석본풀이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7) 이 신화 속의 제석신은 인간의 壽福을 관장하는 신이고, 인세를 창조하거나 다스리는 신은 아니기에 물론 <제석본풀이>는 창세시조신화의 계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8) 이 서사단락은 서대석이 이본들 사이의 대비를 통하여 추출한 것을, 본고에서 참고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서대석(1980a), 앞의 책, pp. 49-51 참조.

4. 중이 딸아기 방에서 자게 되는데 딸아기는 잠자는 도중에 잉태의 꿈을 꾸다.
5. 다음날 중이 해몽하여 아들 三胎를 예언하고 딸아기에게 자기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라진다.
6. 딸아기가 잉태하고 귀가한 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한다.
7. 딸아기는 죽게 되었으나 모면하고 감금된다.
8. 딸아기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이에 부모가 이들을 집으로 데려온다.
9. 아이들이 글방에서 동료들에게 시기와 조롱을 당한다.
10.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부친의 근본을 물어 알아낸다.
11. 딸아기와 아이들이 부친을 찾아가 만나고 부친(중)은 아이들에게 혈육 확인을 위한 시련을 부과한다.
12. 부친(중)과 아이들의 피가 합쳐지자 부친은 비로소 자식으로 인정한다.
13. 부친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神職을 부여한다.

이 이야기는 동북지역 전승유형인바 서남지역 전승유형에서는 딸아기가 감금되지 않고 곧장 추방되며, 딸아기를 만난 중이 세속살림을 차리고 있어 자식의 부친찾기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9)</sup> 위의 이야기는 크게 다섯 과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중과 딸아기의 만남(단락 1,2,3,4,5), 부모의 딸아기 임신에 대한 징계(단락 6,7), 세 아들의 탄생과 성장(단락 8,9,10), 세 아들의 부친 찾기 시련(단락 11,12), 신직 획득(단락 13)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천지왕>형과 대비해 보면, 첫째 과정은 천부지모형 신성혼에, 셋째 과정은 인세시조의 지상탄생에, 넷째 과정은 부친찾기 승천에, 그리고 다섯째 과정은 치소 좌정에 각각 대응되고 있어 <제석본풀이>와 <천지왕>형은 서사적 구조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천지왕>형에 있는 천상신의 하강, 인세차지(경쟁)이 <제석본풀이>에 나타나지 않으며, <제석본풀이>에 있는 부모의 딸아기 임신에 대한 징계가 <천지왕>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발견되나, 이것은 변모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하여 <천지왕>형에서 <제석본풀이>로 변모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격의 변모' 문제이다. <천

19) 전승지역별로 보이는 내용적인 차이에 대하여는 위의 책, pp. 27-69 참조.

지왕>형에 나오는 당칠성(천지왕)은 천신으로서 천상에서 하강하여 매화부인(백주할망의 딸)과 신성혼을 한다. 그런데 <제석본풀이>에는 그러한 천상신의 하강 대목이 두루 나타나지 않으며, 주인공인 증은 천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신화의 등장인물이 천상적 존재에서 ‘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sup>20)</sup> 다만 <제석본풀이>의 여러 이본 가운데 일부 몇몇 자료에서 천상에서 하강한 주인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가 「史花仙本 시준국」(강릉)<sup>21)</sup>인바 여기서는 석가여래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兪鑣贊本 제석부리(1)」(청주)<sup>22)</sup>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통하여 증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천상적 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증으로 바뀌면서부터 이본들 가운데는 지상에서 탄생하여 고생 끝에 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제법 많다. 증의 내력담의 삽입 문제는 따로 다루겠거니와 이러한 이야기로 인하여 증은 지상인으로서 초월성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딸아기 임신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이것은 <천지왕>형에는 없던 것으로 <제석본풀이>로 변모되면서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부모는 귀가하여 딸아기의 임신 사실을 알자, 양반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화를 내고 딸을 죽이려 한다. 양반됨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가문의식이 발달한 조선 중기 이후에야 가능한 사고방식이다. 아울러 부모 몰래 혼인하거나 잉태한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여성의 不貞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화에는 도덕적인 규범을 문제삼는 일이 별로 없기에 <천지왕>형에는 이 이야기가 원래부터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거론되어야 할 것이 ‘자식의 숫자 증가’ 문제이다. <천지왕>형에는 형제가 태어나지만 <제석본풀이>에서는 삼형제가 태어난다. 물론 건국신화를 보면 단군과 주몽처럼 한 명만이 탄생되는 것으로 묘사되나

20) 자세한 것은 위의 책, pp. 71-83 참조.

21) 김태곤(1971), 『한국무가집』 1, pp. 196-235.

22) 김영진(1976), 『충청도무가』, pp. 244-258.

국가의 건국시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같은 서사구조를 갖는 무속신화이면서도 한쪽에서는 자식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 문제거리가 된다. 이는 아마도 해당 신격과 연관이 된다고 보여진다. 즉 <천지왕>형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형제가 필요했지만, <제석본풀이>에서는 인간의 壽福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多産의 의미로 많은 자식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 세 형제는 그 신직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따로 치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창세기조신화의 핵심요소이던 '인세차지경쟁'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으로 <천지왕>형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살펴볼 것은, <제석본풀이>가 내용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떠한 삽화들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석본풀이> 이본들을 보면 기본적인 서사단락 이외에도 다른 삽화들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주인공인 '중의 내력담'이다. 이것은 중이 탄생한 뒤 나중에 중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것을 구분하면 부모를 일찍 잃고 삼촌 집에서 雇工살이를 하다가 중을 만나 절에 가서 중이 되거나(오산 「이종만본 제석」,<sup>23)</sup> 화성 「심복순본 제석굿」,<sup>24)</sup> 화성 「김수회본 제석굿」<sup>25)</sup>), 부모가 명산대천에 기차 치성하여 태몽을 얻어 낳은 뒤 그 아이가 조실부모하고 난을 피하여 산에 갔다가 중이 되는(양평 「김용식본 제석본풀이」<sup>26)</sup>)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중의 내력담'에 자주 덧붙여지는 삽화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구전되고 있는 <장자못전설>이다. 이 두 이야기가 결합하여 등장하는 자료로는 「전명수본 성인노리푸념」(강계)<sup>27)</sup>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먼저 '중의 내력담'이 구술된다. 그 내용은 <無名-황금산 절에서 백일기도-태몽 임신-13세까지 不語-황금산 가서 중이 됨>으로 정리할 수 있는바, 그 내용이 위의 「김용식본」과도 또 다를 수 있다. <장자못전

23) 秋葉 隆 外(1937), 앞의 책, pp. 133-144.

24) 김태곤(1978), 『한국무가집』 3, pp. 163-172.

25) 위의 책, pp. 268-281.

26) 서대석(1980a), 앞의 책 자료편, pp. 324-375.

27) 손진태, 무격의 신가, 『문장』 1940.9.

설>은 이 '중의 내력담'에 이어 첨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황금산 주재문장이 장자집에 가서 齋米 시주 요청-먼지 퍼주나 며느리가 다시 재미 시주-금기 제시-며느리의 금기 위반으로 化石-장자집은 늙>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삽화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명수본 성인노리푸님」은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셈인데, 그 서사적 전개 과정은 <중의 내력담 + 장자못전설 + 제석본풀이>라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위의 「전명수본 성인노리푸님」과 같은 내용에 또 다른 삽화인 '성조가'가 삽입되고 있는 자료가 「李高粉本 성주」(함흥)<sup>28)</sup>이다. 그런데 제석본풀이게 무가인 이 「이고분본」은 亡人의 저승길을 薦度하는 곳인 '망목'에서 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이 무가에 나오는 '중의 내력담'과 <장자못전설>은 「전명수본 성인노리푸님」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sup>29)</sup> '성조가'는 중의 내력담에 이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절에 간 방덕이 효도하려고 하산-나무 찍어 가지고 오자 부모가 부엌 속으로 피신-부엌에 불을 넣다가 부모를 태워 죽임-죄책감에 다시 중노릇>으로 전개되고 있다. 「李高粉本 성주」의 서사적 전개 과정을 삽화만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중의 내력담 + 성조가 + 장자못전설 + 제석본풀이>가 될 것이다.

이상 살펴 보았듯이 <제석본풀이>의 일부 자료는, 주인공이 중으로 설정된 까닭에 중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차용되면서 전체의 줄거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석본풀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삽화의 수용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이 신화에 창세시조신화의 일부가 차용된 내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2.3 <베포-천지왕본풀이>형

<천지왕본풀이>형에 <창세가>형이 합쳐진 것이 <베포-천지왕본풀이>형(이하略하여 <베포천지왕>형)이다. 이 신화는 단일한 신화가 아니

28) 김태곤(1978), 『한국무가집』 3, pp. 112-124.

29)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주」의 '중의 내력담'에서는 '성주'하여 기자 정성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장자못전설>에서는 며느리가 중에게 재미 시주하는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 복합된 신화인 셈인데, 이렇게 된 것은 창세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창세신화가 시조신화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원래 제주도에서는 초감제 굿거리에서 창세시조신화가 불려지는데, 천지개벽과 일월 조정담은 <베포도업침>에서 구송되고, 인세시조에 관한 이야기는 <천지왕본풀이>로 구송된다고 한다.<sup>31)</sup> 이 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는 4편이다. 네 편 모두 제주도에서 채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가명	전송지	구연자	채록자	발표지	발표연도
①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제주	안사인 정주병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②	초감제	서귀포	박봉춘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③	천지왕본풀이	북제주	강일생	임석재	천지개벽신화	1977
④	천지왕본풀이	북제주	고대중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1973

지역적인 동일성 때문인지 각 자료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운데 「안사인·정주병본」(이하 안정본)<sup>32)</sup>이 가장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자료의 서사단락을 제시하고 이어서 다른 자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천지가 혼합하고 개벽하여 천지인 일월이 생겨 난다.
2. 천지왕이 두 해와 달을 먹는 꿈을 꾸다.<sup>33)</sup>
3. 천지왕이 지상에 하강하여 총명부인과 혼인한다.
4. 도래를 섞어 쌀을 준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축생화시킨다.

30) 서대석(1980b), 앞의 논문, pp. 27-28.

31) 서대석(1980b), 위의 논문, p. 6.

현용준(1980), 『濟州道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p. 16.

32) 현용준(1980), 위의 책, pp. 33-43.

33) 바로 앞부분에도 複數 日月이 나오는데, 이것을 천지왕이 활로 쏘았는지 대별왕과 소별왕이 쏘았는지 문맥으로는 불분명하다. 대·소별왕의 행위는 뒷 부분에 또 나온다.



5. 천지왕은 형제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 박씨를 준 뒤 승천한다.
6. 총명부인이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고 양육한다.
7. 형제가 글방에서 無父之子라 조롱받자 어머니에게 부친의 근본을 묻는다.
8. 형제는 어머니가 준 박씨를 심어 그 줄을 타고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
9. 형제가 복수 일월을 활로 쏘아 제거한다.
10. 형제가 서로 이승을 차지하려고 내기를 한다.
11. 수수께끼에서 진 동생이 꽃 피우기 내기를 제의하고, 僞計로 형의 꽃을 훔친다.
12. 형이 동생을 나무라며 이승을 넘겨주고 자기는 지옥을 차지하는데, 악이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13. 과연 소별왕의 치세 후에 인세에는 악이 만연한다.

단락 1,2는 안사인이立唱하며 구송한 ‘베포도업침’으로 천지개벽과 일월조정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나머지는 정주병이 앉아서 구송한 천지왕본풀이인데, 앞의 <천지왕>형과 동일하다. 나머지 자료와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뽑아보면, 단락 1,2는 ‘천지개벽’과 ‘일월 조정’으로, 단락 4는 ‘수명장자징치’로, 단락 3,5,6,7,8은 ‘인세시조의 출생’으로, 단락9는 ‘일월 조정’으로, 단락 10,11,12,13은 ‘인세차지경쟁’으로 함축시킬 수 있다.

먼저 ‘천지개벽’은 모든 자료에 공통된다. 그러나 ‘일월 조정’은 「고대증본」<sup>34)</sup>에는 나타나지 않고 「안정본」에는 있지만 천지왕이 꿈에 일월을 하나씩 먹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박봉춘본」<sup>35)</sup>과 「강일생본」<sup>36)</sup>에는 두 해와 달이 있어 인간이 고통받고 있으나 제거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일월 조정’의 내용이 희미해진 이유는 <창세가>형과 <천지왕>형이 결합되면서 인세시조가 창세신의 활동영역이던 일월 조정 능력을 흡수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끝까지 ‘베포도업침’의 부분에 일월 조정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앞서 거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창세가>형에서는 ‘천지창조’와 ‘인세창조’ 두 신화소가 나타난

34) 임석재(1977), 앞의 논문, pp. 13-18.

35) 秋葉隆 外(1937), 앞의 책, pp. 369-374.

36) 임석재(1977), 앞의 논문, pp. 19-25.

다. <배포천지>형에 있는 천지개벽과 일월 조정은 바로 ‘천지창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후자의 ‘인세창조’의 신화소는 빠져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이 복합되면서 어느 한 부분이 자주 탈락되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

‘수명장자정치’는 「안정본」에만 나타난다. 동일 지역에서 채록된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네 편의 자료들 가운데 한 편에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삽화는 분명 창세시조신화의 고유한 요소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세시조의 출생’은 「강일생본」에서는 아예 탈락되어 있고 곧장 두 형제가 치소를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대중본」에도 천부지모형 신성혼은 있으나 인세시조의 탄생과 성장 부분은 빠져 있다. ‘인세시조의 출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치소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일생본」과 「고대중본」만이 부친이 직접 형제에게 이승과 저승을 배정하고 있다. 나머지 두 자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부친이 직접 治所를 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원형에 가까울 것임을 필자는 이미 앞서 지적한 바가 있다.

단락4의 ‘일월 조정’은 인세시조의 행위로서 두루 나타난다. 이 경우 「안정본」과 「고대중본」에서는 치소 배정 이전에 부친의 명령으로 형제가 활로 일월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천지왕>형에서처럼 인세차지 경쟁이 끝난 뒤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인세를 통치하는 자가 제대로 권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세차지경쟁’은 특이하게 「박봉춘본」에만 탈락되어 있다. 秋葉隆의 『朝鮮巫俗の研究』<sup>1)</sup>을 보면 「박봉춘 천지왕본풀이」가 채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신화소가 들어 있다. 이는 아마도 이 구연자가 자신이 제공한 「초감제」와 「천지왕본풀이」를 서로 구별하려는 의식이 개입된 탓에, 전자에서는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구송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채록사항이 밝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유형은 복합본이기 때문에 앞의 두 유형의 서사구조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알기 쉽다. 정리하면 『천지창조-천상신 하강-천부지모형 신성혼-인세시조의 지상탄생-부친찾기 승천-일월조정-인세차지경쟁-치소 좌정』이 될 것이다.

## 2.4 &lt;생굿&gt;형

이 유형은 <창세가>형과 <제석본풀이>가 합쳐지고 그밖의 여러 다른 삽화가 들어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석본풀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유형에 해당되는 「강춘옥본 생굿」(함흥)<sup>37)</sup>이 장수, 성공, 득자, 재수를 비는 巫儀인 「세인굿(성인굿)」에서 불려지고 있으며, 「정운학본 三胎子풀이」(평양)<sup>38)</sup>가 재수굿에서 불려지고 있어서,<sup>39)</sup> 무속제의의 성격으로 보아 창세시조신화가 구송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시조신화 계열의 일부 유형이 결합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하나의 파생형으로서 처리하여 다루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앞서 필자는 <제석본풀이>에 여러 다른 삽화가 삽입되어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다. 여기서 살펴볼 그 하나가 <창세가>형이 삽입된 일군의 자료들이다. 모두 네 편의 자료를 들 수 있겠다.

먼저 <창세가>형과 <제석본풀이>가 결합된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정운학본 三胎子풀이」, 「박용녀본 당고마기노래(강릉)」,<sup>40)</sup> 「최음전본 당금아기I(영덕)」<sup>41)</sup> 등을 들 수 있다.

「정운학본」에 삽입된 창세가를 보면, 천지창조나 인세창조와 같은 신화소는 들어 있지 않고 평화로운 미륵의 치세에 석가가 인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쟁의 내용도 앞서 살펴본 <창세가>형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일월 조정담의 경우 復數 日月이 아니고, 미륵이 인세를 넘겨주면서 이것을 가져가버리자 그것을 석가가 도사에게 매를 쳐서 그를 통하여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마디로 이 자료에는 ‘석가와 미륵의 인세차지 경쟁’과 ‘일월 조정’의 신화소가 삽화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37) 임석재·장주근(1966), 『관북지방무가(추가편)』, 문화재관리국, pp. 1-18.

38) 임석재·장주근(1966), 『관서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pp. 509-527.

39) 서대석(1980a), 앞의 책, pp. 62-64.

40) 김선풍(1977),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자료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p. 284-297.

41) 최정여·서대석(1974),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pp. 72-84.

「박용녀본」에는 ‘석가와 미륵의 인세차지 경쟁’만이 삽입되어 있고 ‘일월 조정담’은 없다. 경쟁의 내용은 「정운학본」의 것과 같다. 「최음전본」은 특이하게 <창세가>형이 <제석본풀이>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곧 석가여래 세준이 ‘애가슴(딸아기)’과 동침하고 잉태를 예언하고 나선 대목 다음에 이 <창세가>형이 삽입되었다가, 이어서 부모가 귀가하여 딸의 잉태 사실을 인지하는 대목이 또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만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정운학본」의 것과 같다.

<창세가>형이 삽입된 양상을 세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공통되는 것은, <제석본풀이>의 주인공이 중이면서도 인세차지 경쟁의 대상을 보면 한결같이 ‘미륵과 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세가>형이 지니는 원래의 모습이 변모되지 않고 그대로 삽입되어 남아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이 <창세가>형과 <제석본풀이>가 결합되고 그밖의 여러 삽화가 개입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생긔」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석가여래에 관련된 곳인 「생인긔」에서 불려지기에, 중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동원되어 수용되고 있다.<sup>42)</sup> 서사진행에 따라 수용된 삽화를 적시해 보면 <창세가 + 성조가 + 중의 내력담 + 금강절의 인경 주조담(에밀레종전설) + 장자못전설 + 제석본풀이>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李高粉本 성조」보다도 수용된 삽화가 훨씬 많은 셈이다.

삽입된 <창세가>형의 내용을 보면 ‘천지개벽’, ‘인간의 창조’,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 경쟁’, ‘일월 조정’ 등의 신화소가 찾아져, 「김쌍들이본 창세가」와 함께 가장 풍부한 신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긔>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속제위가 변질되어 대상 신격이 변모하면서 거기서 불려지는 무속신화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석가여래를 위하는 곳에서 불려지는 「생긔」이, 내용은 달라도 등장인물의 성격만 같다면 유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차용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생긔>형은 <천지왕>형을 토대로 하여 생겨난 <제석본풀이>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창세기조신화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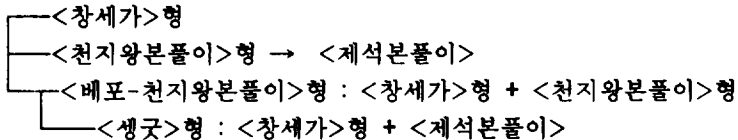
42) 서대석(1980a), 앞의 책, p. 62.

아니라 <제석본풀이>의 後代本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 3. 종합적 검토—결론을 대신하여

이상 필자는 창세시조신화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았거니와 자료들 사이에 내용적인 차이가 있어, 이 모두를 한꺼번에 간단히 <창세가>니 혹은 <천지왕본풀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실상을 감안하여, 창세시조신화의 자료들을 <창세가>형과 <천지왕본풀이>형으로 大別하고, 또 이 두 유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베포-천지왕본풀이>형과, 여기서 파생된 <생긋>형을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창세시조신화가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체계에 맞추어 전승되고 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창세시조신화들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짜여질 것이라고 믿는다.

\* 창세시조신화의 전승 체계 \*



1. <창세가>형 : 『천지창조(천지개벽·일월조정)-인세창조-인세차지 경쟁-治所 좌정』
2. <천지왕본풀이>형 : 『천상신 하강-천부지모형 신성혼-인세시조의 지상탄생-부친찾기 승천-인세차지(경쟁)-治所 좌정』
3. <베포-천지왕본풀이>형 : 『천지창조(천지개벽)-천상신 하강-천부지모형 신성혼-인세시조의 지상탄생-부친찾기 승천-일월 조정-인세차지 경쟁-치소 좌정』

위를 보면 창세시조신화가 제법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유형 체계 아래에 제시된 특징적인 내용을 볼 때 보다 확연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창세가>형의 내용은 문헌신화(곧 건국신화)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속신화들은 구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화의 영역 안에 당당히 자리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한국신화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 보이기 위하여, 창세시조신화를 우리 신화의 체계에 함께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천지왕본풀이>형은 천상적 존재가 하강하여 지상에서 신성혼을 하고 거기에서 탄생한 인세시조가 부친으로부터 치소를 배정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천부지모형 신성혼은, 앞서 이미 지적한 대로 檀君·朱蒙神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구조적 동질성이 지적되거나, 필자는 한국신화의 전반적인 전승체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속신화와 건국신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두 신화를 아우를 수 있는 분석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43)</sup>

또한 <천지왕본풀이>형에서는 인세의 시조가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의 천부지모형 결합을 통하여 완전한 신성성을 갖추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 점 역시 건국신화의 건국시조에게서 찾아진다. 단군신화의 단군이나 주몽신화의 주몽에게서 그러한 ‘천·지의 완결성’이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인세시조든 건국시조든 모두 반드시 천상적이고 지상적인 신성함을 함께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양자의 속성을 얻는 효과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의 천부지모형 신성혼일 것이다. 천부지모형 신성혼이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편 창세시조신화를 보면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모든 유형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諸神間의 치소차지 경쟁이야말로 신화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건국신화에서도 이 요소가 찾아지는 것 같은데,

43) 필자는 신화가 궁극적으로 신격의 좌정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격의 좌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두 신화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몽신화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제신간의 치소차지 경쟁은 민담과 전설에 변용되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龍神說話인데 <삼국유사> 소재의 居陀知說話, 함경도의 赤池傳說<sup>44)</sup> 등을 보면 제신간의 치소차지 경쟁이 잘 나타난다. 다만 신화와 차이가 있다면 용신설화에서는 악신을 제치하는 존재로 제 3자인 영웅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신화에서의 '치소차지경쟁'은 '인세'의 통치권 쟁탈이 그 목적인데 비하여, 설화의 경우는 그것의 목적이 국지적인 '居所'에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별고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4) 崔常壽(1984),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pp. 477-479.